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사연의 주인공에 대한 청취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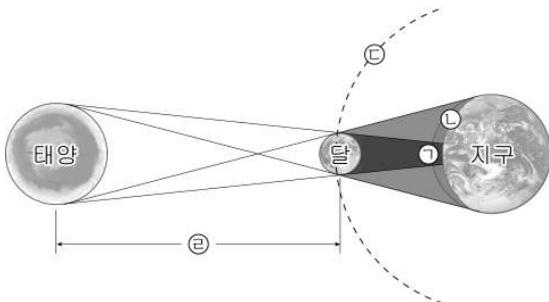
- ①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진솔하게 들려주었군.
- ②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군.
- ③ 어린 여자아이의 행동을 자아성찰의 계기로 삼았군.
- ④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군.
- ⑤ 선입견을 버리고 인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시도하고 있군.

2. (물음) 선생님의 마지막 말에 제대로 답한 학생은?

- ① 첫 번째 학생
- ② 두 번째 학생
- ③ 세 번째 학생
- ④ 네 번째 학생
- ⑤ 다섯 번째 학생



3. (물음)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안에 있는 관측자는 개기일식을 볼 수 있겠군.
- ② 지난 일식 때 한반도는 ㉠ 안에 있었겠군.
- ③ 달이 ㉠의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과 ㉡의 위치는 달라지겠군.
- ④ ㉡이 멀어질수록 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점점 사라지겠군.
- ⑤ ㉡이 항상 일정하지 않은 것은 ㉡이 타원형이기 때문이겠군.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인터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곤충 산업은 최근 들어 새롭게 형성된 산업 영역이다.
- ② 곤충 산업은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 ③ 국내 곤충 산업에서 농업 분야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 ④ 곤충 산업 연구소는 환경 정화 곤충 산업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 ⑤ 곤충 산업의 목적은 곤충의 생태적 특성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다.

5. (물음) 사회자가 인터뷰 진행 계획을 메모한 것이다. 실제 인터뷰에서 나타나지 않은 항목은?

◆ 인터뷰 진행 계획

- 전망 및 과제의 제시를 요구한다.①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도록 요구한다.②
- 관련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석을 요구한다.③
- 내용을 적절하게 요약해서 잘 전달되도록 진행한다.④
- 분명한 개념이 드러나도록 정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사물을 활용하여 '올바른 학습 태도'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보기>의 단계에 따라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_____ < 보 기 > _____
- 1단계 : 학습 전의 태도
 - 2단계 : 학습 중의 태도
 - 3단계 : 학습 후의 태도

학습 단계	사물	주목한 기능	연상한 내용
1단계		겨냥하는 지점을 나타낸다.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①
		중요한 일정을 날짜별로 기록한다.	학습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한다.②
2단계		햇빛을 한 점으로 모아낸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학습한다.③
		하루하루의 일을 기록한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학습한다.④
3단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다.	학습한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을 확인한다.⑤

7. 학급 게시판의 공지 내용대로 글을 쓰려고 할 때, 공지 내용을 충족한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학년 1반 짱구들 보세요. 학교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반의 특징을 역설적인 발상으로 보여주면서 '꿈이 없는 침대는 틀린 문장의 마침표와 같다.'라는 급훈을 실천하는 우리 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글을 공모합니다.

답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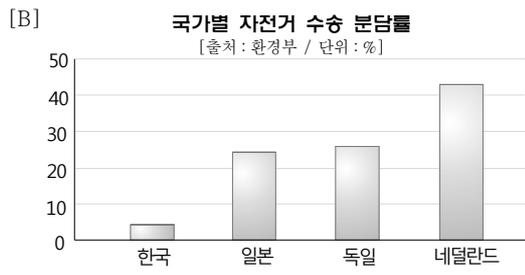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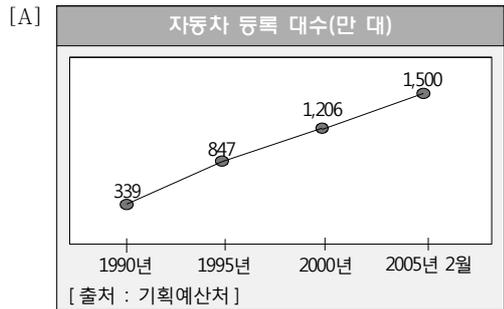
- ① 공부만 잘하는 열등생들이 모여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죽고 공부에 사는 반, 바로 3학년 1반입니다.
- ②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항상 웃음꽃을 피우며 미래의 꿈을 만들어나가는 교실, 3학년 1반입니다.
- ③ 재능 있는 학생이 많아서 평범한 학생이 오히려 돋보이는 반이 있습니다. 이상을 향해 쉽 없이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나가는 곳, 3학년 1반입니다.
- ④ 지각, 결석하는 학생마저 없어 불행한 반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이곳, 3학년 1반입니다.
- ⑤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몸처럼 호흡하는 반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따르고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는 민주 광장, 3학년 1반입니다.

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신문 기사

우리나라 대기오염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5년 전에 비해 순위가 대폭 하락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목하고 있다. - ○○신문 -

<자료 2> 통계 자료



<자료 3> 인터뷰

1. 성인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성인병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 한의사 ○○○ -
2.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부딪혀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 직장인 □□□ -

- ① <자료 1> + <자료 2>의 [A] : 자동차의 증가가 대기오염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② <자료 1> + <자료 2>의 [B]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③ <자료 2>의 [A] + <자료 3>의 1 : 성인병 증가와 자동차의 증가가 관련될 수 있음을 들어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통해 운동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④ <자료 2>의 [B] + <자료 3>의 1 : 선진국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성인병을 예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⑤ <자료 2>의 [B] + <자료 3>의 2 :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9. '비정부 기구(NGO)에 나타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 수정 및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p>I. 처음</p> <p>1. NGO의 개념</p> <p>2. NGO 활동의 의의</p>	<p>㉠ : NGO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자료로 제시한다.</p>
<p>II. 중간</p> <p>1. NGO 현황</p> <p>가. NGO 수와 활동 분야</p> <p>나. NGO 활동 성과</p> <p>다. NGO 활동의 향후 전망</p> <p>2. NGO의 문제점</p> <p>가. NGO 간 교류 부족으로 같은 분야에서의 활동 중복</p> <p>나. NGO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p> <p>다. NGO 구성원의 자질 미흡</p> <p>3. NGO의 활성화 방안</p> <p>가. 재정 독립을 위한 방안 마련</p> <p>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참여 유도</p> <p>다. </p>	<p>㉡ : 상위 항목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삭제한다.</p> <p>㉢ : NGO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한 시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자료로 제시한다.</p> <p>㉣ : 'II-2-가'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조직 문화의 형성'으로 수정한다.</p> <p>㉤ :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통한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항목을 추가한다.</p>
<p>III. 끝</p> <p>NGO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당부</p>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보기>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해 검토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기 >

대학 시절을 막연하게 젊음의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시기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대학 시절에 ㉠ 축적했던 책에 좌우되므로, 가능한 한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 풍부한 정서와 폭넓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이해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덕성을 길러야 합니다. ㉢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대학 시절에 독서나 정서 함양, 폭넓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감 있는 ㉣ 사회인으로써 활동하기 위한 준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런데 대학생은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미래의 자기 인생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 ① ㉠은 문맥상 적절한 어휘가 아니므로, '섭렵했던'으로 고쳐야겠어.
- ②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경험을 폭넓게 해야 합니다.'로 바꿔야겠어.
- ③ ㉢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은 조사의 쓰임이 잘못되었으므로, '사회인으로서'로 고쳐야겠어.
- ⑤ ㉤은 앞뒤 문장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므로, '하지만'으로 수정해야겠어.

11.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1 >

● '-ㅁ/-음'에 대하여

□ 명사형 어미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형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어 주어와 서술하며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있다.

□ 접미사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킨다.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으므로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없고, 관형어가 올 수 있다.

< 보기 2 >

ㄱ. 그곳에 모인 사람이 큰 웃음을 웃었다.

ㄴ. 영화는 잠¹을 잠²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ㄷ.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나니 피로가 풀렸다.

ㄹ. 크게 웃음으로써 교실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었다.

① ㄱ의 '웃음'은 '큰'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접미사이다.

② ㄴ의 '잠¹'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고, '잠²'의 '-ㅁ'은 접미사이다.

③ ㄷ의 '잠'은 '자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④ ㄷ의 '잠'은 서술성이 없지만 ㄹ의 '웃음'은 서술성이 있다.

⑤ ㄹ의 '웃음'은 '크게'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명사형 어미이다.

12 <보기>는 문학 작품에 나오는 순우리말의 뜻을 조사한 것이다. <보기>의 어휘를 사용해 빈칸을 채울 수 없는 문장은?

- < 보 기 >
- 헌걸찬 :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한
 - 성마른 : 참을성이 없고, 성질이 조급한
 - 추태한 : 걸모습이 보잘것없고 궁상스러운
 - 객쩍은 : 행동이나 말, 생각이 쓸데없고 싱거운
 - 심드렁한 : 마음에 탐탁하지 아니하여 관심이 거의 없는

- ① 달수의 그런 () 꼴을 본 사람들은 경멸에 앞서 동정을 보냈다.
- ② () 소리 그만두어요. 그 따위 실없는 소리를 할 때가 아니에요.
- ③ 어디서나 그 () 허우대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한결 돋보였다.
- ④ 정씨까지도 완전히 맥이 탁 풀려 그 것처럼 애타하지도 않고 () 낯색이었다.
- ⑤ 꽃이 피고 나비가 녀노는 () 봄날이었다. 태후는 잔치를 열고 왕을 청했다.

[13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부모를 잃은 계월은 여공에게 구원된 뒤, 이름을 평국이라 고치고 여공의 아들 보국과 동문수학하여 과거에 급제한다. 나라에 큰 반란이 일어나자 평국(계월)은 원수, 보국은 중군(부원수)이 되어 이를 평정하고 계월은 잃었던 부모를 찾게 된다. 그후 계월이 병이 나자 황제는 어의를 보내 치료하게 한다. 어의는 계월이 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황제에게 아뢴다.

이때에 평국이 병세 차차 나으매 생각하되 ‘어의가 내 맥을 보았으니 본색이 탄로날지라. 이제 하릴없으니 여복으로 고쳐 입고 규중에 몸을 감추어 세월을 보낼이 옳다.’ 하고, 즉시 ㉠ 남복을 벗고 여복 입고 부모님을 뵈고 호느끼며 두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거늘 부모도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더라. 계월 비감하여 우는 거동은 추(秋) 구월 연화꽃이 세우(細雨)를 머금은 듯 초승달이 수운에 잠긴 듯하며, 아리따운 모습은 당대에 제일이라. 이때에 계월이 황제께 상소를 올렸거늘, 상이 보시니,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후 평국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거듭 절하며 아뢰옵니다. 신첩이 오세 이전에 장사랑 변란에 부모를 잃었고 도적 맹길을 만나 수중고혼이 되었을 것을 여공의 덕으로 살아났사오나 일념에 생각하온즉 여자의 행색을 하여서는 규중에 늙어 부모의 해골을 찾지 못함이 되옵기로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복색을 하와 황상을 속이옵고 조정에 들었사오니 신첩의 죄 죽어도 아깝지 않으며 큰 벌을 각오하고 있기에 ㉡ 유지와 인수를 올리옵나이다. 임금을 속인 큰 죄를 빨리 처벌해 주시옵소서.

하였거늘 천자 글을 보시고 용상을 치며 좌우를 돌아보아 왈, “평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으리오. 고금에 없는 일이다. 비록 세상은 넓으나 문무겸전하고 갈충보국하여 충효상장지재는 남자라도 미치지 못하리이다. 비록 여자나 벼슬을 어찌 거두리요.” 하시고 환관에게 명하여 유지와 인수를 도로 환송하시고 답장 하였거늘 계월이 황공 감사하여 받아보니,

경의 상소를 보니 놀랍고 일변 장하도다. 충효를 겸전하여 반적 소멸하고 사직을 안보하기는 다 경의 하해 같은 덕이라. 짐이 어찌 여자라 허물하리오. 유지와 인수를 환송하니 추호도 너무 엄려치 말고 경은 갈충보국하여 짐을 도우라.

하였거늘 계월이 사양하지 못하여 여복을 입고 그 위에 관복을 입고 부리던 제장 백여 명과 군사 천여 명을 감주를 갖추어 승상부 문밖에 진을 치고 있게 하니 그 위의 엄숙하더라.

[중략 줄거리] 황제는 계월의 아버지(위공)와 보국의 아버지 여공을 불러 보국과의 혼례를 상의한다. 이에 양가 부모는 결혼을 승낙하고 두 사람에게 알린다. 그러나 계월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슬퍼하며 아버지를 통해 마지막 ㉢ 군사 사열을 황제에게 요청하여 승낙을 받는다.

이때에 원수 좌우를 돌아보아 왈, “중군이 어찌 이다지 거만하뇨? 바빠 험신하라.”

㉣ 호령이 추상갈거늘 군졸의 대답 소리 장안이 끊는지라, 중군이 그 위엄을 보고 겁이 나고 얼떨떨해 감주를 끌고 몸을 굽히며 들어가니 얼굴에 땀이 흘렀는지라, 바빠 나가 장대 앞에 었드리니, 원수 엄정한 얼굴빛을 띠고 꾸짖어 왈,

“군법이 지중하거늘, 중군이 되었거든 즉시 대령하였다가 명 내림을 기다릴 것이어늘, 장령을 중히 여기지 않고 태만한 마음을 두어 군령을 소홀히 하니 중군의 죄는 아주 무엄한지라 즉시 군법을 시행할 것이로되, 심본 짐작하거니와 그저는 두지 못하리라.”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중군을 빨리 잡아내라 하는 소리가 추상 같은지라, 무사 일시에 고향을 지르고 달려들어 장대 앞에 꿇리니 중군이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진정하여 아뢰되,

“소장이 신병(身病)이 있어 치료하옵다가 미처 당도하지 못하였사오니 태만한 죄는 죽어 마땅하오나 병든 몸이 중상을 당하면 명을 보전치 못하겠삽고 만일 죽사오면 부모에게 불효막심하오니 었드려 바라건대, 원수는 하해와 같은 은덕을 내리사 ㉤ 전일 깊은 정을 생각하와 소장을 살려주시면 불효를 면할가 하나이다.”

하며 무수히 애걸하니, 원수 속마음은 우스우나 겉으로는 호형하여 왈,

“중군이 신병이 있으면 어찌 영춘각의 애첩 영춘으로 더불어 주야로 풍류를 즐기노? 그러나 사정이 없지 못하여 용서하거니와 차후는 그리 마라.”

분부하니 보국이 고마워하며 거듭 감사해 하고 물러나니라.

원수 이렇듯 종일 즐기다가 군을 물리치고 본궁으로 돌아올새, 보국이 원수께 하직하고 돌아와 부모에게 옥빈 사연을 낱낱이 고하니 여공이 ㉠그 말을 듣고 대소하여 칭찬 왈,

“내 며느리는 친고의 여중군자로다.”

하고 보국더러 일러 왈,

[B] “계월이 너를 옥보임이 다름 아니라 어명으로 너의 배필을 정하매 전일 중군으로 부리던 연고라 다시는 못 부릴까 하는 마음이 들어 너를 희롱함이니, 너는 추호도 꺼리고 미워하지 마라.”

하더라.

- 작자 미상, 『홍계월전』 -

* 유지(諭旨)와 인수(印綬) :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글과 도장과 병부 주머니

1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황제는 신하들과 의논하여 계월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 ② 황제는 계월을 궁궐로 직접 불러들여 계월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 ③ 계월은 보국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 ④ 보국은 계월이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벼슬을 그만두려 하고 있다.
- ⑤ 계월의 아버지와 보국의 아버지는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1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월은 남자로서의 삶에 대해 회한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계월과 보국의 혼담이라는 새로운 사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③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에 대한 계월의 공식적 고백이라 할 수 있다.
- ④ 계월이 자신의 지난 삶과 남장을 하게 된 이유를 요약하여 밝히고 있다.
- ⑤ 계월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신임을 재확인 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15 <보기>는 [B]를 근거로 ㉠에 대한 ‘계월’과 ‘보국’의 속마음을 추리한 것이다. 알맞게 묶은 것은?

< 보 기 >

<계월>

가. 결혼하면 아내로서 보국을 대해야 할 텐데 결혼 전에 윗 사람의 위세를 부려 봐야겠군.

나. 결혼하면 남편이 지금보다 더 게을러질 텐데 결혼 전에 나쁜 버릇을 고쳐 봐야겠군.

다. 결혼하면 보국이 복종을 강요할 텐데 내가 만만한 여자가 아님을 각인시켜야겠군.

<보국>

라. 남편이 될 사람을 너무 몰아세워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데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군.

마. 시아버지의 호방한 성격을 밋고 벌써부터 나대는데 정말 아니꼬워 죽겠군.

바.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깔보면서 놀리고 있는데 정말 불쾌하군.

- ① 가, 라 ② 가, 마 ③ 나, 라
- ④ 다, 마 ⑤ 다, 바

16 ㉠~㉢에 대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모순된 사회구조에 맞서려 하고 있다.
- ② ㉡ :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물러나겠다는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원수가 가진 권위와 통솔력이 부각되어 있다.
- ④ ㉠ : 인정에 호소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 ⑤ ㉢ : 계월의 의도를 간파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未知)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던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靈魂)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 인고(忍苦)의 물이
수심(水深)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 김남조, 「겨울 바다」 -

(나)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 티끌만한 잘못이 멧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하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넒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질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역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 신경림, 「동해 바다 - 후포에서」 -

(다) 새로이 이사를 와서
형편없이 더럽게 슬어 있는
흑갈빛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슬어 있을지

부끄럽고 죄스러워 손이 아린 줄 몰랐다.
나는,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 비늘처럼 총총히 돌혀 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
그리 살아온
마흔세 해 수많은 불면의 축수가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절없이 울먹었던 뽀얀 사랑까지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슬어 있음을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 허형만, 「녹을 닦으며 -공초*14」 -

*공초 : 조선시대 형사사건에서 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조서. 여기서는 전봉준의 공초 기록을 의미함.

1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 (다)는 과거의 삶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 ③ (나), (다)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⑤ (가)~(다)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18. (가)와 (나)의 '바다'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바다는 인격적 대상이고, (나)의 바다는 자연적 배경이다.
 - ② (가)의 바다는 미지의 이상 세계이고, (나)의 바다는 구체적 현실 공간이다.
 - ③ (가)의 바다는 좌절과 깨달음의 공간이고, (나)의 바다는 담고 싶은 대상이다.
 - ④ (가)와 (나)의 바다는 인생에서 겪어야 할 시련이다.
 - ⑤ (가)와 (나)의 바다는 한계 상황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기도를 끝낸 다음'과 '문이 열리는'을 '원인 - 결과'라는 구조로 구성하여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허무의 / 불 /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와 대조하여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③ ㉢은 '티끌 → 멧방석 → 동산'의 점층적 표현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이라는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반성의 강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슬픈 역사'라는 추상적 관념을 '돌혀 있는 비늘'로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0. <보기>는 (다)의 감상문의 일부이다. <보기>의 밑줄 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화자는 새로 이사 온 집에서 ㉠ 대문의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화자는 대문의 녹을 벗겨내는 일을 하면서 닦아내야 할 녹이 대문에만 슬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도 슬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 생명이 다하는 순간을 생각하며,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마흔세 해를 살아오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바르게 살기 위해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고 고민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니 ㉢ 이미 자신의 영혼이 타락해 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죄스럽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끄러움은 부정적 현실을 보면서 아파할 줄 알았던 ㉣ 순수한 사랑마저 이제는 잃어버렸음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러한 순수성을 되찾기 위해 화자는 온 힘을 다해 반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대문을 닦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은 지식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전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지식을 알기 위한 과정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지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철학의 한 분야가 인식론(認識論)이다. 인식의 문제는 고대에도 소피스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에 의하여 논의되었으나 철학의 중심 문제로 등장한 것은 비교적 근대의 일이다. 그 이유는 근대에 이르러 철학적 지식도 자연 과학적 ㉠ 지식과 같은 확실성을 요구하게 되면서 지식의 문제가 자연히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근대 인식론은 크게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두 유형으로 나타났다.

17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경험주의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것만을 지식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은 인간의 경험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감각적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선형적(先驗的)인 것은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경험주의는 지식을 얻는 방법론으로 주로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개별 현상들을 관찰하고 검증함으로써 공통된 특징을 찾아내거나 동일한 관계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현상들에 공통되는 법칙을 구성하거나 동일한 개념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 유럽의 백조가 희다고 전 세계의 백조가 희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방법론 자체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한 합리주의는 감각에 의해 얻어지는 개별적 사실들은 항상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라고 보지 않았다. 그들은 지식이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였고, 이는 이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합리주의는 이성에 의한 지식만을 가장 이상적인 지식으로 여긴다. 여기서 이성이란 후천적인 감각 능력에 대립되는 선천적인 인식 능력을 말한다. 합리주의는 지식을 얻는 방법론으로 주로 연역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합리주의는 보편으로부터 개별을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합리주의는 감각 경험과 물리적 현상을 도외시켰기 때문에 구체적 현실에 대한 지식을 무시한다는 점과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대립에 대해, 칸트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 체계를 제시한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 중에는 감성과 오성이 있다고 보았다. 감성이란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자극(감각 자료)을 감각적인 직관으로 만드는 능력을 말하고, 오성이란 감각적인 직관에 대해 사유하여 개념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칸트는 인간의 지식은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합쳐져야 지식이 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내용은 감각 경험을 말하고, 형식은 오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칸트는 외부에서 잡다하게 자극이 주어지면 감성이 이것을 감성의 형식으로 질서를 만들고, 오성은 이것을 오성의 형식인 범주를 통해 구성하여 지식을 완성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서 칸트는 감각적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험주의의 문제점과 감각 경험을 도외시하는 합리주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종합했던 것이다.

2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합리주의는 선천적 인식 능력을 통해 지식을 얻으려 하였다.
- ② 합리주의는 개별 현상들에서 동일한 개념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 ③ 칸트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 ④ 경험주의는 지식을 얻는 방법론으로 주로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⑤ 경험주의는 지식이 인간의 감각 경험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2. ㉠과 사례가 유사한 것은?

- ① 학자가 자동차 사고를 냈다고 그의 학문적 업적까지 폄하해서 안 된다.
- ② 타인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자신의 잘못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 ③ 만수가 경수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수를 사랑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유명한 시인이 평론했다라도 그 평론이 미술 작품에 관한 것이라면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사과가 달콤하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과가 달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언어 영역

23 위 글의 '칸트'가 <보기>의 '거미형 학자'에게 조언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베이컨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거미는 자신의 몸에서 줄을 뽑아 집을 짓고, 나중에 그 줄을 먹은 후에 다시 줄을 뽑아낸다. 이런 거미형 학자는 외부에서 추가되는 자료를 무시하고 자신의 사고 속에 있는 것만으로 이론을 만든다. 이들은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지만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 ① 자신의 내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② 이성을 버리고 감각 경험에 충실해야 오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 ③ 오성에 충실할 때 비로소 새로운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신의 내적 자료를 오성으로 개념화해야 지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 ⑤ 내용인 외부의 감각 경험과 형식인 오성이 갖춰져야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4. ㉔의 '과'와 의미가 유사한 것은?

- ① 철수는 형과 동생이 있다.
- ② 동수는 도둑과 맞서 싸웠다.
- ③ 영희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 ④ 순이는 예전의 모습과 사뭇 달라 보였다.
- ⑤ 영수는 아이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놀았다.

[25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남궁씨는 친구의 조그만 회사를 맡아, 오 년 여만에 안정적인 회사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그 친구의 아들이 회사를 경영하겠다고면서 퇴직을 강요하여, 위로 여행 차 두 달여 동안 외국을 다녀온다. 집에 돌아와 보니 연변에 사는 남궁씨의 육촌 동생과 그의 가족들이 와 있었고, 그들은 가져온 우황청심환과 한약재를 팔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남궁씨는 친구의 아들에게 약재들을 사 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남궁씨의 부탁을 들어준다.

이제 그만큼 해줬으면 흡족한 마음으로 남은 약보따리를 걸머지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시청 앞 지하도로 쫓겨 들어간 거리의 약방을 따라 남궁씨의 친척네 식구도 좌관을 벌였다. 날은 하루하루 추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얇은 초가을 옷과 아무리 도와줘도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욕심이 보기 싫어 모르는 척하려도 갈 데가 없어진 남궁씨의 발길은 매일 그 곳으로 출근을 하다시피 했다. 평화 시장에서 싸고 보기 좋은 두툼한 겨울옷을 사다가 그들의 어깨에 슬그머니 걸쳐 주기도 하고, 유행 지난 옷을 아내와 며느리에게 구걸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눈에 쌍심지를 쏘우고 그들의 공상에 욕지거리를 퍼붓곤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친척들 곁에 우두커니 앉아서 흥정에 끼어들기도 하고 말동무도 하면서 소일을 했다. 자연히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할 적도 많았다. 아우도 계수도 소주를 좋아했다. 화장품이랑 꽤 팬츠는 옷이랑 잔뜩 갖다 준 날이었다. 마누라가 아무리 좋은걸 줘도 감지덕지할 줄 모르고 넘죽넘죽 받기만 하는 게 미안했던지 아우가 거나한 술김에 이렇게 말했다.

“성님도 자식 길러 봤으니 부모 맘이 어드뭇다는 걸 알죠. 북조선도 가보고 여기도 와 보니까 부모 맘을 알아갑니다. 자식 중에 못사는 자식이 있으면 그저 개저다 보태 주고 싶구, 잘사는 자식한테는 조금이라도 덕을 보고 싶은 리기심이 생기기구. 성님이 리해하시라우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북조선에 처가 친척을 만나러 갔을 때 얘기를 했다. 마누라는 준비해 가지고 간 것을 다 털어 주고도 신고 간 신, 입고 간 옷까지 동생의 헌 것하고 바꿔 입고 왔다고 했다. 그럼 ㉑ 그들의 기죽을 줄 모르는 뻔뻔스러움은 부모 의식의 당당함이었다는 말인가. 남궁씨는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그들이 싫어지거나 미워지지 않았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그들은 가져온 걸 다 처분하고서야 떠났다. 아내는 앓던 이가 빠진 것보다 더 시원하다고 했다. 그러나 남궁씨는 이제부터 혼자 뭘로 소일을 하나, ㉒ 처럼 막막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였다. ㉓ 아내가 조용히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내는 자주 그랬고 또 왜 그런다는 걸 남궁씨는 알고 있었지만 근래에 그런 눈치를 보인 건 처음이었다. 아내가 그 버릇을 고친 게 아니라 그 동안 연변 친척한테 정신이 빠져 아내의 설움에 너무 소홀했었다 보다. ㉔ 그는 하던 버릇대로 아내를 돌아 눕혀 조용히 안아 주려고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와락 돌아누우며 그의 가슴을 마구 두드렸다. 격렬한 오열 사이사이로 아내가 울부짖었다.

“현이 자식 나쁜 자식. 망할 놈의 새끼야, 그 새끼 정말. 아아, 당신 말쑥으로 그 새끼 망종이야. 고작 그게 사회주의라니? 그 거렁뱅이 근성이. 그 자식은 그게 뭐가 좋다고 신세를 망치고. 영, 영, 영.”

아내는 막무가내로 울부짖었다. 남궁씨는 비로소 그 동안 그들 부부가 사이에 끼고 엇갈린 게 연변 동포가 아니라 둘째아들 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연변 동포에 대한 미움도 호의도 실은 그들의 실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낯선 친척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현이로부터 비롯되고 있었다. 현이는 대학 입학년 때부터 운동권이였다.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다. 남궁씨는 자신의 소년 시절을 영망으로 밟고 지나간 육이오의 기억으로 운동권은 다 좌익으로 보았고, 좌경의 소지라면 이를 같았다. 집안 망칠 망종 취급을 했다. ㉠아내는 그가 말끝마다 아들을 망종이라 부르는 것을 제일 듣기 싫어했다. 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을 테니 들어 보고 이해해 주자고 아무리 애걸을 해도 남궁씨한테는 먹혀들지 않았다. 아들 또한 아버지하고는 한자리에서 입을 어울리기도 싫어했다. 부자지간은 점점 원수처럼 돼 갔고, 현이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때려치우고 노동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아주 집을 나가 버렸다. 가끔 웃도 가지러 오고 전화로 안부도 묻고, 즈이 애미하곤 그런대로 연락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남궁씨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울겨울엔 어떻게 된 게 웃도 안 가지러 오고 전화도 없구, 영 영 영.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 영 영.”

어떻게 아내를 위로할 것인가. 남궁씨는 첫 포옹처럼 가만가만 아내를 안았다. 그리고 가슴을 열고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맞댔다. 나에게도 같은 상처가 있다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밖에 위로의 방법이 없었다.

- 박완서, 『우황청심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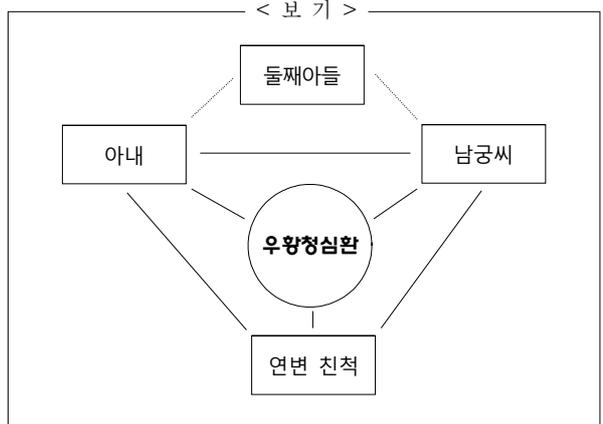
25.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② 신체 부위를 소재로 한 언어유희를 통해 해학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인물의 예상과 실재를 대조하여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유사한 행위를 열거하여 인물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연변 친척의 태도는 잘사는 친척에게 덕을 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 : 아내의 행동은 남궁씨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게 한다.
- ③ ㉢ : 걱정과 슬픔에 빠진 아내를 위로하려고 한다.
- ④ ㉣ : 아내는 실업자인 남편보다 둘째아들을 더 신뢰하고 있다.
- ⑤ ㉤ : 남궁씨도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 둘째아들을 걱정하고 있다.

27. 위 글의 상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궁씨’는 ‘아내’를 보면서 동병상련의 심정을 느끼고 있군.
- ② ‘우황청심환’은 ‘연변 친척’의 궁핍한 처지를 상징하고 있군.
- ③ ‘아내’는 ‘연변 친척’과 ‘둘째아들’을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군.
- ④ ‘남궁씨’는 ‘우황청심환’을 모두 팔려고 하는 ‘연변 친척’을 동정하고 있군.
- ⑤ ‘연변 친척’은 ‘북조선’에 두고 온 ‘처가 식구’를 대했던 것처럼 ‘남궁씨’를 대하고 있군.

28.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평 농친 매
- ② 주먹 맞은 감투
- ③ 꿀 먹은 벙어리
- ④ 그물에 걸린 고기
- ⑤ 끈 떨어진 뒤옹박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 시선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하여 시각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 단위 안에 있는 어느 한 곳이 다른 곳에 비해 더 돋보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미적 원리를 디자인에 적용한 것을 ‘강조’라고 하는데, 이러한 강조를 위해 디자인에서는 ㉠ ‘대비’, ㉡ ‘집중’, ㉢ ‘우세’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대비(對比)는 서로 다른 두 요소가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접근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두 요소를 나란히 배치하여 어떤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도록 하는 방법인 대비는 디자인에서도 대단히 유용하다. 대비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유지하며, 시선을 특정 부분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정보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선을 곡선과 함께 배치하면 직선이 지닌 특징이 곡선에 대비되어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직과 수평, 굵은 것과 가는 것, 큰 것과 작은 것, 매끄러운 것과 거친 것, 먼 것과 가까운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등은 디자인에서 모두 좋은 대비를 이루는 요소들이 된다. 그런데 강조는 이러한 질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양적인 대비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된다. 무수한 직선의 집단에 단 하나의 곡선이 배치되면 형태적 대비와 함께 수량적인 대비도 생겨나 강조의 효과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의 요소를 위해 모든 요소들을 어느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는 집중(集中)도 강조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집중은 시선을 중심이나 초점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리듬의 요소인 방사(放射)* 또는 점이(漸移)*와 함께 사용되면 더욱 효과적이다. 그런데 시선을 어느 중심으로 모은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은 무개의 중심이나 기하학적인 중심과는 개념이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미적 요인과 관계된 것으로 미적 흥미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따라서 그 중심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미적인 느낌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개는 평면 작품의 중심 근처나 그보다 약간 위쪽에 어떤 형상을 배치하면 그곳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중심이 되는 대상 주위에 주변 요소를 종속적으로 배치하는 기법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세(優勢)이다. 이것은 어느 한 범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정하여 이것에 지배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다른 것을 여기에 종속시켜 주가 되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방법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연극이나 영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연 배우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조연 배우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을 지배적인 입장에 놓이게 하려면 대비나 집중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말한 대비와 집중은 모두 우세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대비는 대비된 것 중 더 중심이 되는 어느 하나를 강조하게 되고, 집중은 어느 하나의 중심점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우세의 방법이 적용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흥미와 관심을 ㉣ 끌게 하는 강조의 중심점은 하나여야 하며 둘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디자인의 요소들이 각각 비슷한 정도, 비슷한 비중으로 공존할 때는 우리의 시선이 디자인에서 중심점을 찾지 못해 방황하게 되고, 그 디자인은 긴장감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강조를 위해서는 하나

의 중심점이 초점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초점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종속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 방사 : 중심점 또는 중심이 되는 부분에서 여러 방향으로 퍼져 나가거나 안으로 모이면서 생겨나는 시각적인 율동
 * 점이 : 양이나 크기, 밀도나 강도 등이 단계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생겨나는 시각적인 율동

29.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양적인 대비는 질적인 대비에 비해 강조의 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겠군.
 - ② 리듬을 만드는 방사나 점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집중의 효과를 얻을 수 없겠군.
 - ③ 강조는 중심적인 대상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상들에게까지 시선이 머물도록 하는 것이군.
 - ④ 우세의 방법이 사용된 디자인을 볼 때는 그 속에서 대비나 집중의 방법도 찾아 볼 수 있겠군.
 - ⑤ 한 단위 안에서 강조해야 할 대상의 수는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흥미의 중심에 따라 결정되겠군.

30. <보기>를 위 글의 글쓴이가 작성한 글쓰기 계획이라고 할 때,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보 기 >	
항목	세부 계획
목표	디자인의 원리 소개: 디자인에 적용된 구성 원리 중 하나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①
예상 독자	일반 독자로 설정: 전공자들이 아니므로 전문적인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하도록 한다. ②
세부 내용	강조와 관련된 내용 선정: 디자인에서 강조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을 열거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③
자료 활용	중심 제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활용: 강조의 원리가 잘 반영된 구체적인 디자인 작품을 제시한다. ④
내용 전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전개 방식 사용: 대상의 개념을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 구분과 예시의 방법을 사용한다. ⑤

31.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에겐 인기를 끄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 ② 괜히 시간만 끌지 말고 빨리 가도록 해라.
 - ③ 안 가겠다고 우는 아이를 끌고 병원에 갔다.
 - ④ 이 부분은 교과서 내용에서 끌어 온 것이다.
 - ⑤ 옆집에서 전기를 끌어 쓰러니 몹시 불편하다.

[36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A] 강(江)·회(淮)·하(河)·한(漢)은 물 중에서 큰 것이다. 사람들이 다 반총(蟠冢)·동백(桐柏)·곤륜(崑崙)·민산(岷山)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것이 이 네 산에 달하기 전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대개, 물의 성질은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것이다. 물이 땅 밑에 있을 때는 비록 잠기며 고여 있으나, 땅위에 나오게 되면 흐르고 움직이고 가득 차기도 해서, 그 이치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이 물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둡다. 그러므로 성인은 땅 밑에 물이 있는 형상을 보고 이미 사괘(師卦)*를 만든 후에 비괘(比卦)*를 다음에 이었으니, 사람들에게 근원을 미루어 흐르는 데까지를 보인 것이다.

[B]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물의 근원을 아는가. 축축하게 젖는 것은 물의 남은 기운이다. 그 흐르는 것이 방울방울 끊어지지 않아 잇달다가 강강에 통하고, 큰 바다에 달하여는 호호(浩浩)하고 꽤연히 넓고 넓어 왈각 닥치어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C] 내가 하동(河東)에 있을 때에 집 곁에 작은 샘이 있는데, 그 근원이 수풀 속에 파묻혀 나오는 방향을 알지 못하므로, 이웃 사람들이 더러운 흙에서 나오는 것이라 억측하고, 더럽게 여겨 먹지 않으려 하였다. 내가 가서 보고 그 근원을 청소하고 그 흐름을 터놓아, 조금 동쪽에다가 벽돌로 우물을 만드니 바로 이웃에 있는 냉정(冷井)으로 이름난 것과 수맥이 같고 맛이 또 같으니, 한 근원이요 물줄기만 나누어진 것이었다. 이에 동네 노인들이 서로 와서 치하하며 왕래하고 길어 써도 마르지 않으니, 내가 진실로 옛말과 같이 지혜를 써서 물을 흐르게 한 것인가, 흐르는 것을 거슬러 근원을 알아낸 것인가.

[D] ㉠아,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이 있다. 재주가 족히 임금을 착하게 하며, 백성을 윤택하게 할 선비가 있는데, 사람들이 곁에서 비방하면 물러와서 거칠고 더러움을 참으며 때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성군(聖君)과 지기(知己)를 만나 그 도를 천하에 행하게 된다면, 또 어찌 이 물과 다르겠는가. 오늘날 위에 있는 자는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취하고, 그 마음의 옳고 그름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 또한 물이 흐르는 것만 알고 그 근원은 알지 못함과 같다.

[E]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이를 징험한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물을 논함에 또한 그러하다. 맹자 말씀에,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라고 하였다. 나도 또한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근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 이첨, 「원수(原水)」 -

* 사괘(師卦) : 육십사괘(六十四卦)의 하나. 땅 속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 비괘(比卦) : 육십사괘의 하나. 땅 위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나)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천 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昨過永明寺
暫登浮碧樓
城空月一片
石老雲千秋
麟馬去不返
天孫何處遊
長嘯倚風磴
山青江自流

- 이색, 「부벽루(浮碧樓)」 -

(다)

정월 원일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踏橋)하고 노니는데
우리 님은 어디 가고 답교할 줄 모르는고
이월이라 청명일에 나무마다 춘기(春氣) 들고
잔디 잔디 속일 나니 만물이 화려한데
우리 님은 어디가고 춘기든 줄 모르는고
삼월 삼일날에 강남서 나온 제비 왔노라 현신하고
소상강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
이화 도화 만발하고 행화 방초 홀날린다
우리 님은 어디 가고 화유(花遊)할 줄 모르는고
사월이라 초파일에 관등(觀燈)하러 임고대(臨高臺)하니
원근 고저에 석양은 비졌는데
어룡등 봉학등과 두루미 남성(南星)이며
연꽃 속에 선동(仙童)이며 난봉 위에 천녀(天女)로다
중경등 선등 북등이며 수림등 마늘등과
배등 집등 산대등과 영등 알등 병등 벽장등
가마등 난간등과 사자 탄 체팔이며
호랑이 탄 오랑캐며 발로 툽 차 구울등에
칠성등 벌여있고 일월등 밝았는데
동령(東嶺)에 월상(月上)하고 곳곳에 불을 켜다
우리 님은 어디 가고 관등할 줄 모르는고
- 작자 미상, 「관등가(觀燈歌)」 -

3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서는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다.
 - ② (가)와 (다)의 화자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서는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에는 과거를 회상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가)~(다)의 화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뇌를 표출하고 있다.

37. (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현상 속에 숨은 원리를 제시하며 관심을 유도한다.
 - ② [B] : 질문의 방식으로 통념의 한계를 지적한다.
 - ③ [C] : 자신의 체험을 소개하며 이해를 돕는다.
 - ④ [D] : 유추를 통해 현실을 비판한다.
 - ⑤ [E] :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신뢰감을 준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시구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고려 말 이색이 여행을 하다가 고구려의 도움이 있던 평양성의 부벽루에 올라 감회를 읊은 한시이다. 원(元)나라가 평안도 지역을 점령하고 동녕부(東寧府)를 설치할 즈음 평양은 크게 황폐해졌고, 그 후 다시 고려의 땅이 되었지만 옛 모습을 되찾지 못했다. 이색은 부벽루 주위의 퇴락한 풍경을 바라보며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과 관련된 기린마의 전설을 떠올리면서 고려의 국운(國運)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어렵다는 쓸쓸한 심정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 작품의 애상적 분위기를 짙게 하고 있다.

- ① '지나다가', '잠시'는 작가가 여행 중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텅 빈 성'은 원나라에 의해 쇠약해진 고려의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조각달'은 고구려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 ④ '천손'은 고구려의 동명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휘파람 부노라니'는 작가의 쓸쓸한 심정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39. (다)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② 역설적 발상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며 달을 구분하고 있다.
- ④ 비슷한 사물을 나열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40. <보기>의 조건에 따라 시조를 창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가)의 ㉠과 같은 품사를 제시한다.
- (나)의 ㉡에 나타나는 감각을 활용한다.
- (다)의 주제 의식을 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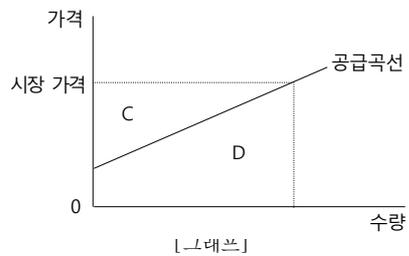
- ① 봄꽃이 피어나서 온 산에 가득하다.
저 꽃도 봄을 알아 옛 산을 찾았는데
어즈버 나의 정인(情人)은 가고 오지 않노라.
- ② 임 그린 꿈속에서 귀뚜라미 낮이 되어
한밤 중 임의 방에 남몰래 찾아가서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 ③ 궁궐은 무너지고 잡초는 무성하니
천 년의 왕업은 물소리 뿐이구나.
아이야 고국흥망(故國興亡)을 물어 무엇 하리오.
- ④ 이 몸이 빌었다면 가지 않을 임이신데
천리 밖 보낸 후에 애간장을 태우네.
보내고 그리는 정이 이다지도 깊을까.
- ⑤ 부귀를 못 이루고 쓸 곳 없는 몸이 되어
오십 년 세월을 한 일 없이 보냈구나.
두어라 어느 강산이 날 꺼릴 줄 있으랴.

[41 ~ 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장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해당 재화를 통해 ㉠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 만족감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부여한 가치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시장 가격(균형 가격)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 소비자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 해당 상품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빼면 그 구매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이 되는데 이를 '소비자잉여'라고 한다.

예를 들어 S라는 ㉡ 장난감을 구매하기 위해 갑, 을, 병, 정 네 사람이 시장에 갔다고 하자. 장난감을 구매하는 데 갑은 1만 원, 을은 8천 원, 병은 7천 원, 정은 5천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장난감의 시장 가격이 7천 원일 경우 소비자잉여는 어떻게 될까?

갑, 을, 병은 장난감의 시장 가격이 본인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같거나 낮기 때문에 장난감을 구매할 것이고 정은 구매를 포기할 것이다. 이때 갑은 3천 원의 소비자잉여가 발생하고, 을은 1천 원의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그리고 병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장난감의 시장 가격이 같기 때문에 소비자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잉여의 합은 4천 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장난감의 시장 가격이 5천 원으로 하락하면 소비자잉여는 어떻게 될까? 시장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갑과 을은 2천 원의 추가 소비자잉여가 발생하고, 병은 최초로 2천 원의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하지만 시장 가격이 5천 원으로 형성되어도 정의 소비자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비자잉여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생산자잉여'가 있다.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 중 최소한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뜻한다. 즉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시장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뺀 것과 같다. [그림 1]에서 공급곡선과 시장 가격에서 수평으로 그어 만들어진 면적(C)이 생산자잉여가 된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친 것을 총잉여라고 한다. 그런데 소비자잉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생산자잉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총잉여는 소비자가 부여한 가치에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뺀 것과 같다.

4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변화한다.
- ②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총잉여라고 한다.
- ③ 소비자잉여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부여한 가치이다.
- ④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다르다.
- ⑤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과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같다.

4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틀린 것은?

< 보 기 >

- 생산자(갑, 을, 병, 정) : 네 사람 모두 1개의 연필만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함
- '판매 희망 가격'이란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의미함

판매자	판매 희망 가격 (원)
갑	300
을	500
병	800
정	1000

- ① 가격이 900원이면 시장에는 3개의 연필만 공급되겠군.
- ② 시장 가격이 1,000원이면 정은 생산자잉여가 발생하지 않는군.
- ③ 가격이 1,000원으로 형성되면 시장에는 4개의 연필이 공급되겠군.
- ④ 시장 가격이 1,000원이면 갑, 을, 병, 정,의 생산자잉여의 합은 1,400원이 되겠군.
- ⑤ 시장 가격이 1,000원이면 갑의 생산자잉여는 을과 병의 생산자잉여를 합한 것보다 많겠군.

43. 위 글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보기>의 그래프에서 상한가격이 설정되었을 경우 생산자잉여에 해당하는 것은? [3점]

< 보 기 >

※ 상한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G)이 너무 높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설정하는 것이다. 상한가격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상한가격 이하에도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만 시장에 참여하고 소비자는 공급할 수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The graph shows a downward-sloping demand curve (수요곡선) and an upward-sloping supply curve (공급곡선). The equilibrium point is F, with price G and quantity Q. A maximum price line is drawn at price B, which is below the equilibrium price G. This creates a shortage. The area between the price axis and B up to the quantity demanded at price B is shaded ABED. The area between the price axis and B up to the quantity supplied at price B is shaded ACED. The triangle formed by G, F, and B is shaded AGF. The triangle formed by B, F, and the quantity supplied at price B is shaded BCE. The triangle formed by B, F, and G is shaded CFG.

- ① 사다리꼴 ABED
- ② 사다리꼴 ACED
- ③ 삼각형 AGF
- ④ 삼각형 BCE
- ⑤ 삼각형 CFG

44. ㉠, ㉡의 '갑'과 의미가 가까운 것끼리 연결된 것은?

- ① ㉠ - 신랑감, ㉡ - 양념감
- ② ㉠ - 책임감, ㉡ - 놀잇감
- ③ ㉠ - 사윗감, ㉡ - 한복감
- ④ ㉠ - 장군감, ㉡ - 양념감
- ⑤ ㉠ - 구경감, ㉡ - 초조감

[45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몸은 ‘자연적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자연적 치유’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연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항원)가 침투하더라도 외부의 도움 없이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면역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는 세포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찾아내 제거하는 ‘킬러 T세포’(killer T cells)이다. 킬러 T세포는 우리 몸을 지키는 파수꾼인 셈이다.

킬러 T세포는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몸속 곳곳을 순찰하는 일을 담당하는 림프세포의 일종이다. 림프세포에는 킬러 T세포 말고도 헬퍼 T세포와 B세포가 더 있다. 헬퍼 T세포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B세포를 활성화시켜 항체를 생산하게 하고 이로 하여금 바이러스를 파괴하게 한다. 반면 킬러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한다. 한편 킬러 T세포는 도로에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처럼 세포 하나하나를 점검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킬러 T세포에게 발각이 되면 죽게 된다. 그렇다면 킬러 T세포는 어떤 방법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할까?

면역 시스템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세포 표면에 있는 ‘MHC(주요 조직 적합성 유전자 복합체)’이다. MHC는 꽃게 집게발 모양의 단백질 분자로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조각을 세포 표면으로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본래 세포 속에는 자기 단백질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원래 없던 바이러스 단백질이 세포 안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 단백질과 바이러스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펩티드* 조각으로 분해되어 세포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MHC와 결합해 세포 표면으로 배달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킬러 T세포가 활동한다. 킬러 T세포는 자기 표면에 있는 ‘TCR(T세포 수용체)’을 통해 세포의 밖으로 나온 MHC와 펩티드 조각이 결합해 이루어진 구조를 인식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MHC와 결합된 펩티드가 자기 단백질의 것이라면 T세포는 자신이 만난 세포를 정상 세포로 인식하고 그냥 지나친다. 하지만 MHC와 결합된 펩티드가 바이러스 단백질의 것이라면 T세포는 활성화되면서 세포를 공격하는 단백질을 감염된 세포 속으로 보낸다. 이렇게 T세포의 공격을 받은 세포는 곧 죽게 되며 그 안의 바이러스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도 우리 몸의 이곳저곳에서는 비정상적인 세포분열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킬러 T세포가 병든 세포를 찾아내 파괴하는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듯 면역 시스템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또한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잘 짜인 구조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펩티드 : 단백질 분자와 구조적으로 비슷하면서 보다 작은 유기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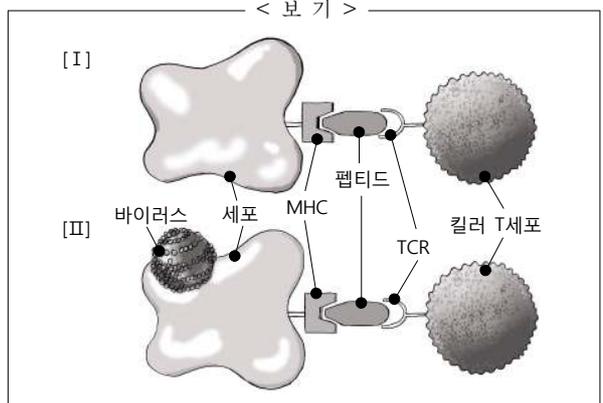
45.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이론을 보완한 새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대상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유사한 기능을 하는 두 대상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46. 위 글을 과학 잡지에 기고하고자 할 때,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1점]

- ① 면역 시스템을 가진 우리 몸
- 바이러스 퇴치의 첩병, 킬러 T세포
- ② 생체 신비의 현장인 우리 몸
- 신기한 생체 현상을 만드는 마술가, 킬러 T세포
- ③ 힘센 바이러스들의 각축장인 우리 몸
- 바이러스들 간의 충돌을 막는 중재자, 킬러 T세포
- ④ 세포들의 삶과 죽음의 공간인 우리 몸
- 세포들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관리인, 킬러 T세포
- ⑤ 자립적 유기체인 우리 몸
- 외부의 도움 없이 세포를 생산하는 활동가, 킬러 T세포

47.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를 접한 후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의 ‘킬러 T세포’는 세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군.
- ② [I]의 ‘MHC’가 이동시킨 ‘펩티드’는 세포 안의 자기 단백질이 분해된 것이겠군.
- ③ [II]의 세포는 ‘킬러 T세포’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소멸되겠군.
- ④ [II]의 ‘펩티드’는 세포 속 바이러스가 그대로 세포 표면으로 이동한 것이겠군.
- ⑤ [I], [II]의 ‘TCR’은 ‘MHC’와 ‘펩티드’의 결합 구조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겠군.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에는 사회상의 다양한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꾸준히 양성평등을 향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언어의 변화 속도는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국어에는 남녀차별의 사회상을 알게 해 주는 증거들이 있다.

우리말에는 그 자체에 성별을 구분해 주는 문법적 요소가 없다. 따라서 남성을 지칭하는 말과 여성을 지칭하는 말,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 따로 존재해야 하지만, 국어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대등하게 사용되고, 이들을 모두 아울러 가리킬 때는 ‘어버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어린이’도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가리킬 때 쓰이고,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가 쓰인다. 이와 같은 말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 변호사, 사장’ 등은 그 직업이나 직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남성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되고, 여성을 가리킬 때는 ‘여의사, 여변호사, 여사장’ 등이 따로 사용되고 있다. 즉, 여성을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함으로써 남녀차별의 가치관을 이 말들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평상어에서는 ‘부모, 소년소녀, 남녀’와 같이 남성을 앞세우고, 속어나 비어 등 부정적인 언어에서는 ‘년놈들, 에미에비’와 같이 여성을 앞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는 말에도 남녀의 차이가 나타난다. 사회생활을 표현하는 말은 여성에 비해 남성과 관련된 말이 많고, 외모나 성품, 행동을 표현하는 말은 남성보다 여성과 관련된 말이 많다. 이러한 언어적 현상 중 전자는 과거에 남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던 사회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남성이 여성의 외모나 성품, 행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의 사회적 차이가 언어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모나 성품, 행동을 표현하는 말 중에 부정적인 묘사어(‘요염하다, 요망하다, 꼬리를 치다’ 등)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는 점은 단순한 차이가 아닌 부정적인 여성관이 작용한 차별의 결과이다. 성적 순결과 관련한 말로 여자의 경우에는 ‘처녀성’이라는 말이 있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총각성’이라는 말이 없다는 점도 그 예이다. 순결을 잃은 총각과 처녀를 평가할 때 여성의 경우는 좋지 않게 보고, 총각의 경우는 상관하지 않던 과거의 차별적 가치관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언어가 관계하고 있는 사회상에 남성과 여성이 관련되어 있는 이상, 남녀의 차이가 언어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 남녀의 사회적 위치가 과거와 다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결과가 앞으로 언어에 반영되겠지만, 현재 언어에 남아 있는 과거의 흔적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위감으로써 남녀의 ‘차이’가 더 이상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48. 위 글의 중심 화제는?

- ① 우리말에 나타나는 여성의 특징
- ② 우리말의 성별 표현의 변화 과정
- ③ 우리말에 반영된 남녀의 차이와 차별
- ④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우리말의 변화
- ⑤ 우리말에 나타나는 남녀차별적 요소의 제거 방안

49.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군.
- ② 남동생이 ‘형’이라 하고 여동생이 ‘오빠’라고 하는 것은 남녀 차별이 아니군.
- ③ ‘호박 같은 얼굴’, ‘양탈부리다’와 같은 말도 남녀차별의 요소를 의심할 수 있겠군.
- ④ ‘차이’는 대상의 속성에 따른 것이고, ‘차별’은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이 개입한 것이군.
- ⑤ 현재 사용하는 말들을 새 말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남녀차별 현상은 사라지지 않겠군.

50.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의 밑줄 친 경우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언어에 도사리고 있는 남녀 불평등 사상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영어의 경우, 70년대부터 이러한 운동을 해 왔는데, 현재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Miss, Mrs의 구분을 없애고 Ms로 통일한 것이나, ‘man’이 들어간 단어들을 중성적인 용어로 바꾼 것으로, chairman → chairperson, policeman → police officer, postman → letter carrier, sales man → sales clerk 등을 들 수 있다.

- ① 처녀작(處女作) → 첫 작품
- ② 파출부(派出婦) → 가사도우미
- ③ 운전수(運轉手) → 운전기사
- ④ 사모님식 투자 → 주먹구구식 투자
- ⑤ 경제학의 아버지 → 경제학의 대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